



브라질, 세계의 식량창고로 거듭난다!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브라질이 2022년 팬데믹 이후 다시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시 성장 가도로 복귀한 브라질의 비결을 살펴본다.

글 임현준(미래에셋증권 브라질법인 이사) 사진 Getty Images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경제위원회 (ECLAC)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남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1년보다 55% 증가한 2,245억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중 41%인 915억 달러가 브라질에 투자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에서도 5위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실제 2022년 브라질 대상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1년 대비 97%의 증가율을 보였다.

농축산업 발전과 무역수지 개선

브라질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난 데에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요인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바탕한 농축산업 발

전과 무역 수지 개선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그 여파로 세계의 곡물창고 중 하나인 브라질의 무역흑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브라질의 무역수지 개선은 단지 글로벌 곡물 가격의 상승 때문만은 아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브라질의 GDP는 예상보다 높은 1.9%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농축산업이 전년보다 21% 가까이 성장한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브라질 농축산업의 성장은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농무부(USDA)가 발표한 2027년까지의 국가별 농업 생산 성장 전망을 살펴보면, 브라질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9% 성장을 달성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위와 3위인 아르헨티나(44%), 러시아(34%)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압도적인 성장세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 수출 규모에서도 같은 기간 브라질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1%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위인 아르헨티나(45%)보다 월등히 앞선 성장세이다. 이러한 전망은 실제 브라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여러 농축산업 발전 정책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 애그테크(AgTech, 농업+테크) 기술을 다각적 차원에서 농작물 생산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농업연구원(EMBRAPA)은 종자를 개량하고, 이모작 농법을 정착시키며,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산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생산 이익률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무인 농기계, LED온실 농장, 스마트 농장 등 다양한 분야로도 농업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현재 전체 국토에서 9% 면적인 7,750만 헥타르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2033년까지 농지 규모는 9,230만 헥타르로 현재보다 20% 정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목축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적은 한국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농경지 면적이 전체 국토면적의 16%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브라질의 지속적인 농경지 개발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실제 브라질은 농경

지 개발이 가능한 엄청난 면적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 최근과 같이 극심한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글로벌 식량난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은 농축산업 관점에서 큰 잠재력과 성장성을 가진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년간의 농축산업 발전과 곡물 가격 상승은 브라질 총 수출 규모 중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농산품 수출에 호재로 작용했으며, 이는 무역수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브라질 농산품 수출은 2021년 1,210억 달러에서 2022년 1,590억 달러로 31% 정도 성장하였으며, 2023년 1~5월 수출 규모만 보더라도 67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6% 정도 증가했다. 수출품목 가운데서도 주요 품목으로 손꼽히는 콩, 닭, 돼지의 경우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브라질 대표 주식시장인 BOVESPA 상장 기업 중 농축산업 관련 대표기업으로는 코산(Cosan), SLC 아그리콜라(SLC Agricola), 산 마르티뇨(São Martinho) 등이 있다.

국가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이러한 긍정적인 무역수지의 영향과 더불어 최근 발표된 새로운 세계 개혁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

는 최근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 시기에도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진행한 브라질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안정단계에 들어선 것을 확인하고 지난 8월 2일 기준 금리를 13.75%에서 13.25%로 0.5%p 인하했다.

위와 같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는 브라질 투자에 더욱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정책적인 뒷받침을 통해 성장 기반을 잘 다지고, 브라질의 긍정적 무역수지 역시 장기적 흐름을 이어간다면 향후로도 브라질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브라질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브라질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브라질에 상장된 개별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혹은 한국에 출시된 브라질 관련 펀드나 브라질이 포함된 중남미 기업 관련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아직 브라질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출시되지 않았으나, 혹 해외 투자에 능숙한 투자자라면 미국 등 선진시장에 상장된 브라질 ETF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

연간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2020~2022년, 단위: 억 달러)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상승률 (2022/2021)
미국	958	3,877	2,850	-26%
중국	1,493	1,809	1,891	5%
싱가포르	729	1,311	1,412	8%
홍콩	1,347	1,401	1,177	-16%
브라질	377	464	915	97%

자료: ECLAC